

충남약사회 연수교육

肝의 작용과 시호제의 분류



약사 박준형



1절 疏泄

2절 血의 순환과 肝膽경락

3절 小柴胡湯

4절 柴胡劑의 분류

5절 龍膽瀉肝湯

6절 托裏消毒飲

7절 黃汗之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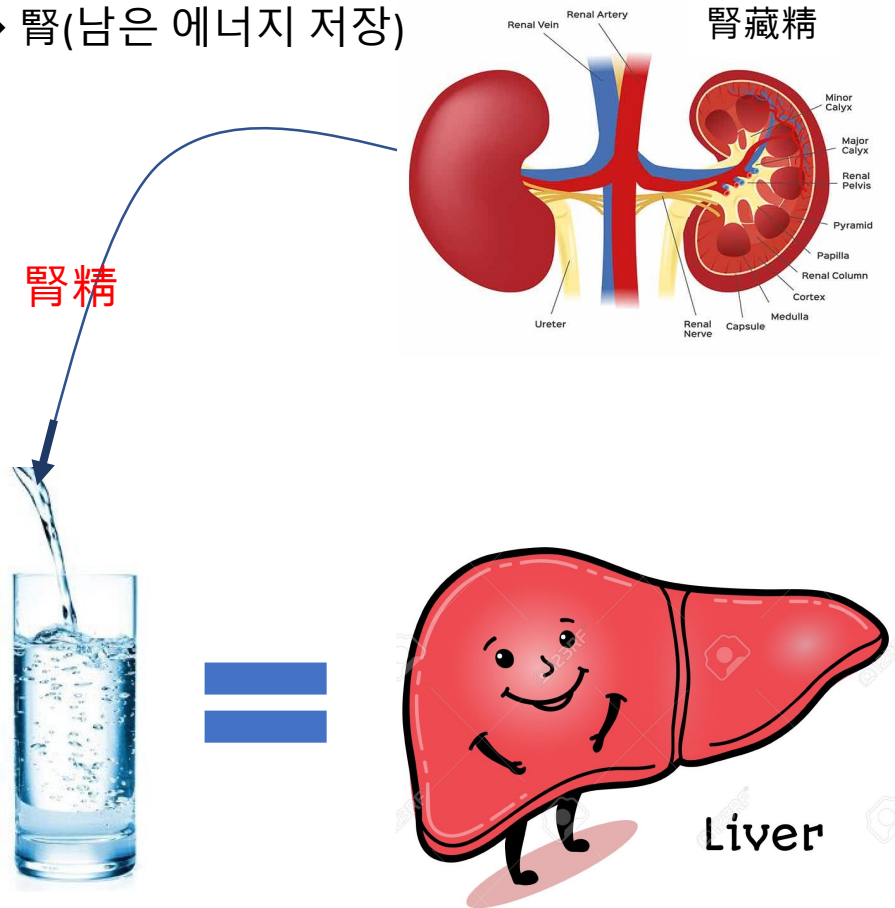
정신 감정과 五臟

五行	臟腑		情(감정)	志(정신)	五味
木	肝	膽	怒	意	酸
火	心	小腸	神	喜	苦
土	脾	胃		思	甘
金	肺	大腸	悲		辛
水	腎	膀胱	恐, 驚	志	鹹



음식 → 脾胃(영양 생성) → 肺(에너지로 전환) → 腎(남은 에너지 저장)

- 肝 = Cup → 肝藏血(肝이 血을 담는 기능)
- 肝에 血이 저장되는 이유: 活血하기 위해(腎精의 자양을 받기 위해)
- Cup에 담기 위해 비워져 있어야 하듯 肝을 비우는 작용(疏泄)이 필요
- 낮 동안 전신을 자양한 血은 小腹을 지나 肝에 저장되고(肝藏血) 밤에 腎精을 공급받아 영양이 보충됨(活血). 다시 아침이 되면 肝에 있는 血은 소복으로 들어가 任脈을 타고 心에 공급되어 전신을 자양함



1절 疏泄

1. 疏泄작용

① 活血

- 肝에 공간을 확보하여 血을 채우고, 血이 채워져야 腎精을 공급받음.(活血)
- 活血을 위하여 疏泄작용이 필요

② 七衝門과 開闔의 樞에서 開의 樞

- 七衝門을 열고 닫는 開闔의 추에서 여는 힘은 肝의 작용
- 疏泄작용으로 七衝門을 여는 힘을 조절

③ 흘러 보냄

- Stressor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이 이기는 것
- 흘러보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 - 억울과 스트레스
- 감정과 의욕을 풀지못하고 저항하는 것 - 情志不舒
- 해결법- 1. 약으로 치료 2. 득도(깨달음)

2. 疏泄부족

- 疏泄되지 않으면 肝에 공간이 생지지 않아 血을 충분히 채우지 못함
- 血을 채우지 못한 만큼 活血 부족 → 자양 부족
- 흘려보내지 못한 것 → 鬱滯 → 火 (肝의 울체로 肝火 발생)
- 血이 活血되지 못하고 자양되지 못하여 瘀血이 발생

疏泄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	活血 부족
	자양 부족
	肝火 발생
	瘀血 생성

2. 疏泄부족

입맥

任脈 Conception Vessel



- 陰交(음교) - 배꼽 1치 아래
- 氣海(기해) - 배꼽 1치 반 아래
- 石門(석문) - 배꼽 2치 아래, 수직으로 내려가면 子宮
- 關元(관원) - 배꼽 3치 아래
- 中極(중극) - 배꼽 4치 아래
- 曲骨(곡골) - 배꼽 5치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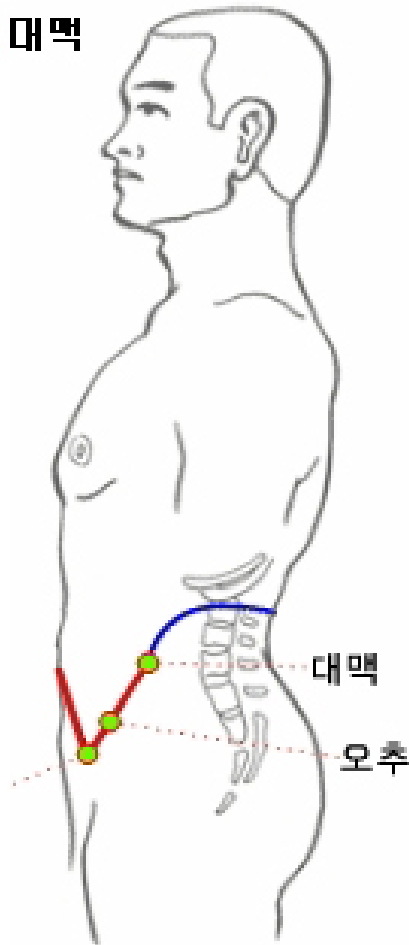
陰이 교차하는 穴	
위 - 任脈	단중(전중): 心包 모혈 - 心 과 연결
옆 - 帶脈	腎과 연결
안 - 衝脈	子宮과 연결 전신 내부를 8자로 도는 경맥 사지말단으로 뻗어있음

배꼽 밑 : 小腹(血海)

腎의 영역

2. 疏泄부족

● 대맥



대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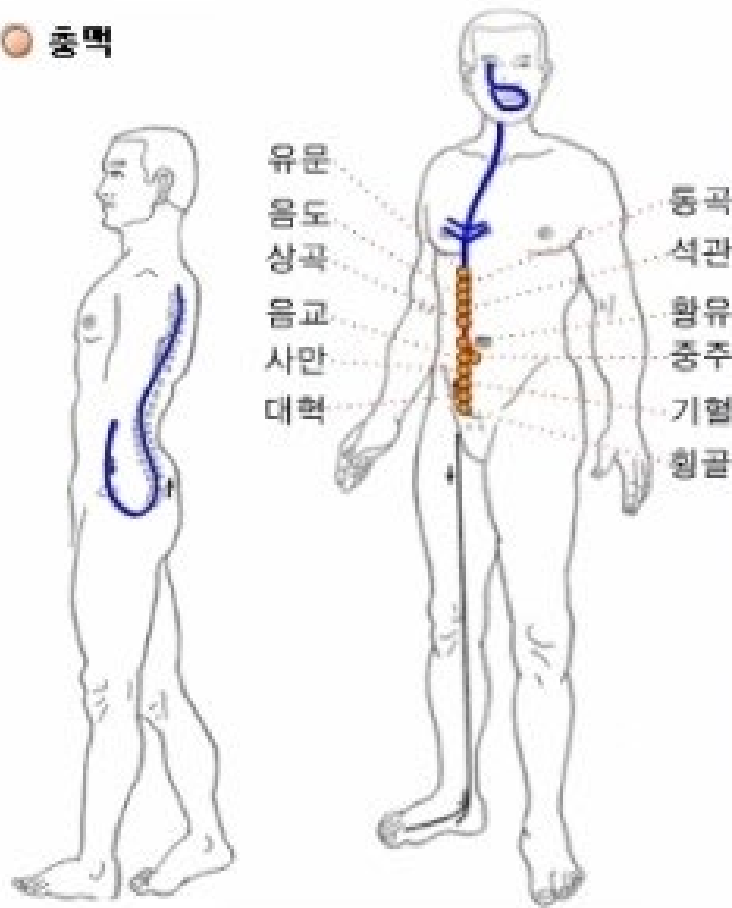
세로로 흐르는 모든 경맥(經脈)에 관여하는 대맥(帶脈)은 허리에서 나와서 비스듬히 복부 앞쪽을 돌아 몸을 한 바퀴 도는데 마치 띠를 맨 것과도 같아서 모든 경맥을 제약하여 망행을 단속하는 것으로 태아(胎兒)를 보호하고 대하(帶下)를 주관하며 난경에서는 '모든 맥이 모두 대맥에 속한다'고 하였다.

주요 병증

대맥이 조화롭지 못하면 주로 부인의 월경불조, 적백대하, 복부팽만, 요부무력 등이 나타난다.

2. 疏泄부족

● 흉맥



흉맥

흉(衡)은 통한다는 의미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앞에서 뒤로, 온 몸을 순행하는 기혈의 요충(要衝)으로서 임맥, 독맥과 연결되어 심이경맥의 기혈을 받아들여 온 몸에 필요한 기혈을 조절하는 흉맥(衝脈)은 '심이경맥의 바다' 또는 '오장육부의 바다'라고 부르며, '양맥의 바다'인 독맥, '음맥의 바다'인 임맥과 함께 '일원삼기(一源三岐)'라 칭한다. 남녀의 생식기능 또한 흉맥과 관계가 깊으며 주로 간(肝), 신(腎), 위(胃)를 통해 기(氣)의 승강(昇降)운동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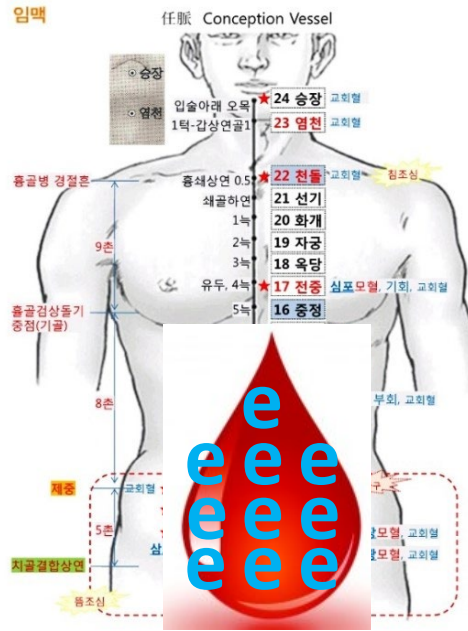
주요병증

기(氣)의 승강(昇降)이 실조되면 천식(喘息), 심통(心痛), 복통(腹痛), 장명(腸鳴) 증상이나, 생식계통으로 월경부조(月經不調), 불루, 유산, 불임증(不妊症) 등 특히 부인병이 많다.

2절 血의 순환과 肝膽경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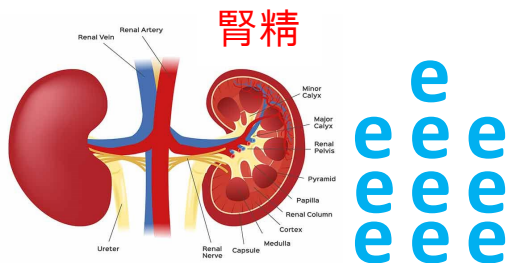
1. 血의 순환

小腹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心으로 가서 전신을 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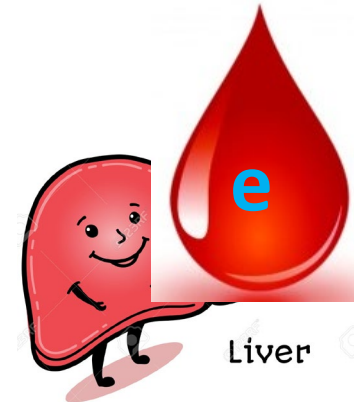


낮 - 전신순환자양(心主血)

밤-영양없는 혈이 任脈타고
小腹거쳐 肝에 들어옴(肝藏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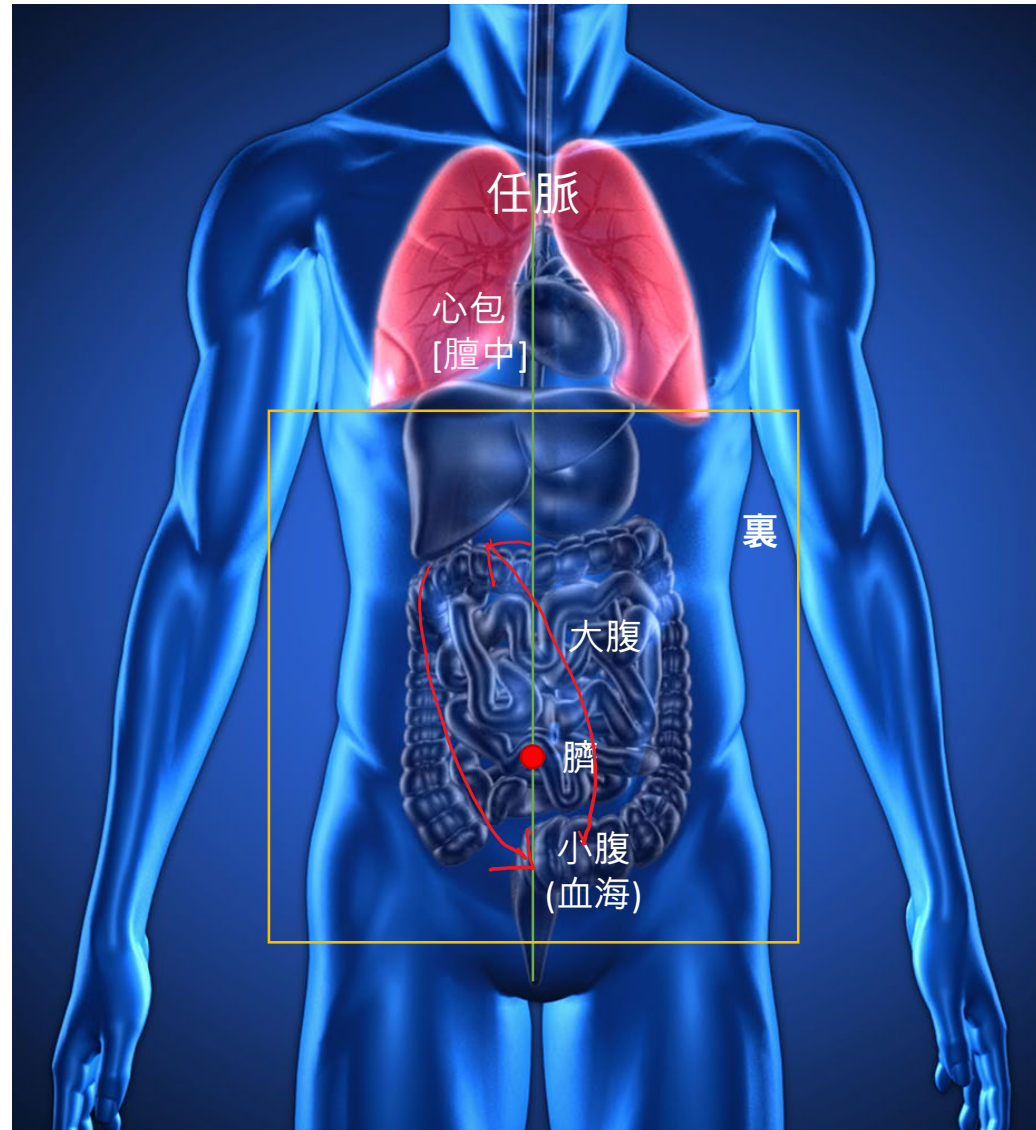


活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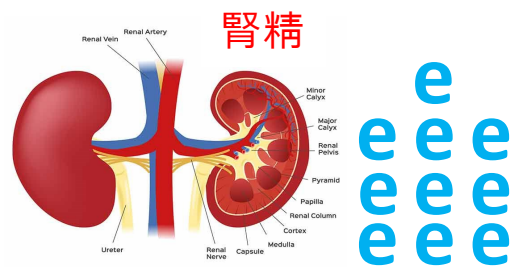


1. 血의 순환

- 大腹(臍上) + 小腹(臍下) = 裏
- 小腹 = 血海
- 肝과 小腹은 서로 순환하여 血을 주고 받음
- 소복의 血은 任脈을 타고 올라가
膻中을 통해 心으로 들어가 전신 자양
- 肝寒 - 血이 肝과 小腹을 순환하지 못하는 것
- 肝寒이 되면 小腹에 영양이 충분한 血이
부족하여 小腹寒이 생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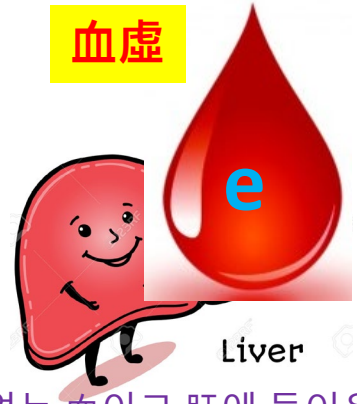
2. 活血通利



活血



血虛



밤:영양이 없는 血이고 肝에 들어옴 (肝藏血)

通利 부족 :

-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날을 새면 血이 腎精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함
- 수면 부족, 날새면 다음날 온 몸이 뻑뻑하면서 아프고 빠근한 증상 발생 → 영양이 없는 血이 전신을 충분히 자양하지 못하기 때문

四物湯	活血작용	영양이 없는 血이 영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는 작용	만드
	通利작용	영양이 충분한 血이 다시 전신에 잘 분포되도록 주는 작용	도와

3. 四物湯

熟地黃

- 通臍藥 - 배꼽을 통하게 함
- 虛 - 배꼽 주위에 攣急(경련과 조임) 발생
- 경련 - 臍旁動悸(혹 臍動悸) 발생 - 陰虛로 인한 경련
- 조임 - 배꼽 주위가 딱딱히 굳어 있는 형태 - 臍急, 有芯, 拘急
- 通臍藥으로 배꼽의 攣急, 動悸, 有芯을 동시에 풀어줌
- 補陰작용으로 陰虛에 작용하는 약

當歸

- 法當歸夫의 준말
- 和血藥 - 小腹으로 들어가 小腹의 血을 肝으로 보내는 작용
- 小腹에서 肝으로 들어간 血은 腎精을 공급받아 活血이 됨
- 活血된 血은 다시 小腹으로 들어와 소복을 따뜻하게 하고, 任脈을 타고 올라가 心을 통해 전신을 자양하여 따뜻하게 하고, 피부가 고와지게 함
- 當歸의 피부 개선 효과는 직접 피부에 작용한 것이 아닌 위의 기전을 통해 이루어짐

3. 四物湯

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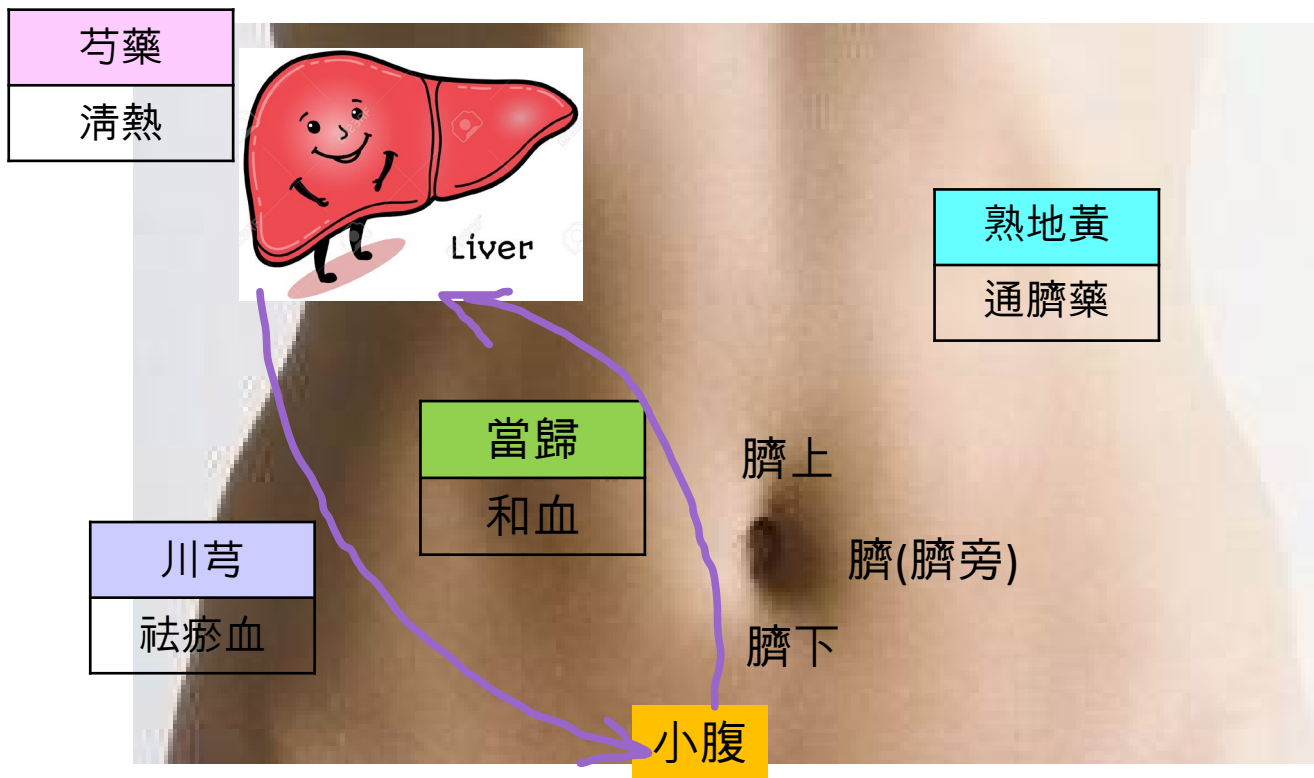
- 疏泄되지 못하면 血을 채울 수 없고, 疏泄* 되지 못하고 남은 만큼 쌓여 오래되고 울체되면 火가 되어 肝火 발생
- 肝火을 清熱하여 肝이 정상적으로 血을 저장하도록 함
- 健脾劑인 이유 - 脾를 직접 補하지 않으나, 肝火를 청열하여 肝火犯胃를 차단

* 대표적인 疏泄劑 : 枳實, 大黃, 芍藥

川芎

- 울체되어 活血되지 않은 血은 瘀血이 됨
- 祛瘀血劑로 活血되지 않은 瘀血을 제거

3. 四物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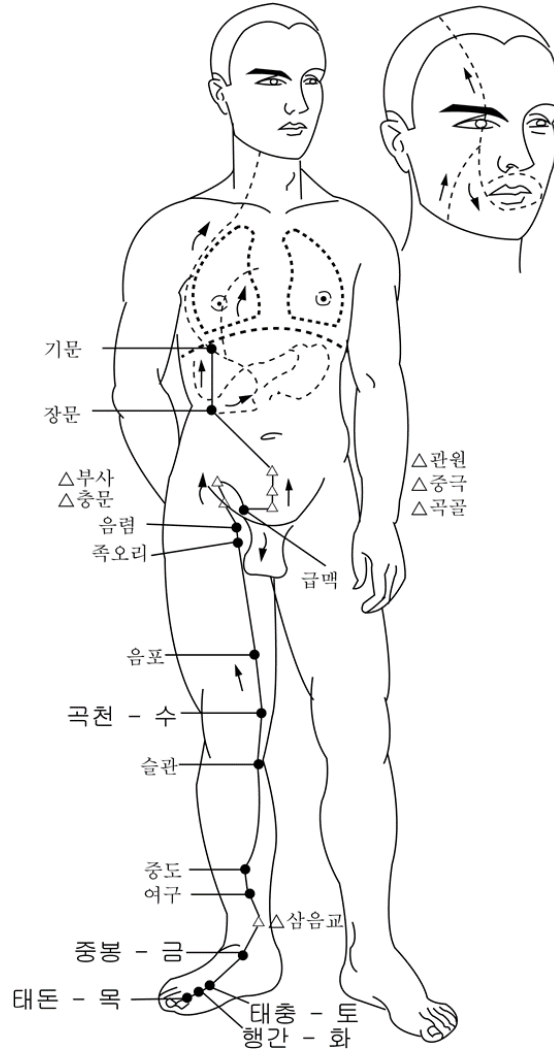


四物湯	기전	熟地黃으로 補陰하고 當歸로 小腹과 肝을 和血시키면서 芍藥이 肝에 울체된 火를 清熱하고 川芎이 瘀血을 제거하여 血의 순환을 촉진
	血의 聖藥 (부인병의 성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腹과 肝의 순환을 살려 血이 活血通利되도록 하고 衝脈으로 자궁에 血을 공급한다. • 단독 사용않고 치료목적에 맞는 본초와 배오하여 사용해야 함

4. 肝膽經絡

- 肝路 - 筋, 腱, 爪, 眼, 膝
- 膝者筋之府 - 筋의 참고. 膝은 腎에 속할 뿐 아니라 肝에도 속함

<足厥陰肝經의 유주>



4. 肝膽 經絡

<족궐음간경 관련 장부 및 기관>

족궐음간경은 간에 속(屬)하고 담에 락(絡)하며
폐, 위, 심장으로 들어가고 생식기, 횡격막, 유두(乳頭), 식도, 인후(咽喉), 입술, 눈, 뇌에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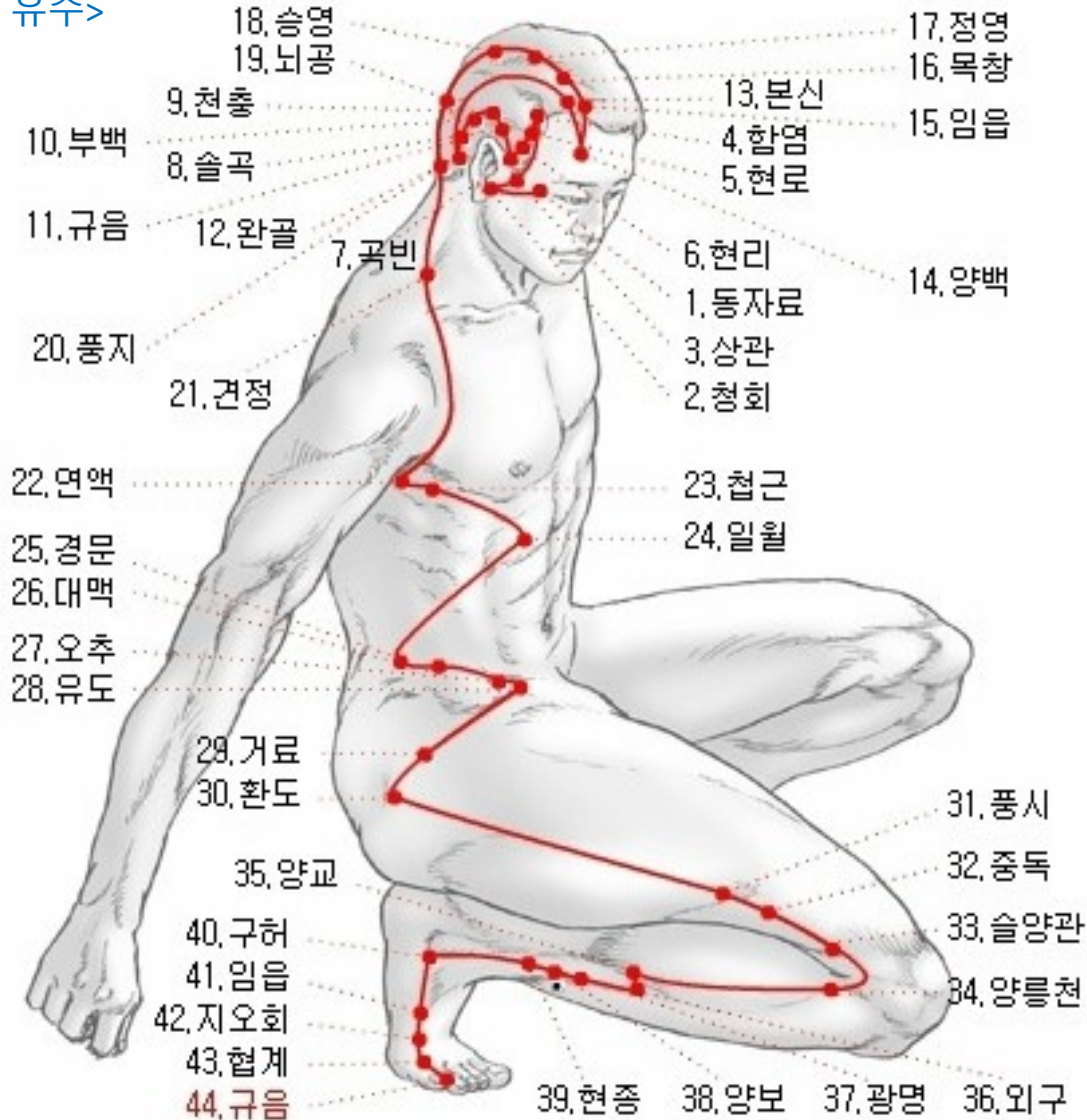
간은 비위와 목극토의 상극 관계에 있고 대장과는 상통(相通)관계에 있기 때문에
족궐음간경은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경맥으로 임상에서 빈용되고
있다.

족궐음간경의 경맥과 락맥은 남자의 고환, 음경, 여성의 외음부 관련 질환의 치료에
중요하다

경맥요법, 김재호, P551에서 인용

4. 肝膽 經絡

<足少陽膽經의 유주>



3절 小柴胡湯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博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 臟腑相連 基痛必下 邪高通下 高使嘔也.

(혈약기진 주리개 사기인입 여정기상박 곁어협하 정사분쟁 왕래한열 휴작유시
묵묵불욕음식 장부상연 기통필하 사고총하 고사구야)

- 傷寒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胸中煩而不嘔 渴 腹中痛 脇下痞硬 心下悸 小便不利 不渴 身有微熱 咳者. (상한오육일 왕래한열

흉협고만 묵묵불욕음식 심번희구 흥중번이불구 갈 복중통 협하비경 심하게 소변불리 신유미열 해자)

- 主治 少陽病 半表半裏 胸脇苦滿 往來寒熱 微熱 無熱 食慾不振 舌白苔 嘔吐 咳痰 便秘或下痢 淋巴腺腫脹 腹痛 頭汗 四肢苦微熱 神經質 黃疸. (주치

소양병 반표반리 흉협고만 왕래한열 미열 식욕부진 설백태 구토 핵담 변비혹하리 임파선종창 복통 두한 사지고미열 신경질 황달)

- 傷寒四五日 身熱惡風 頸項強 脇下痛 手足溫 而渴者. (상한사오일
신열오폭 경항강 협하통 수족온 이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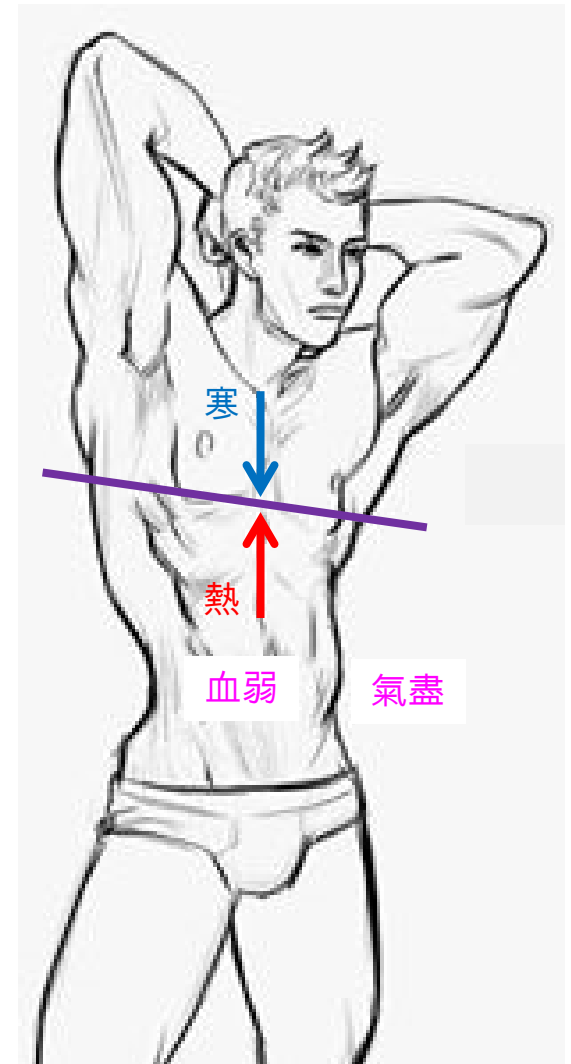
- 法堂腹中急痛者(先與小建中湯) 不着者. (법당복중급통자 선여소건중탕 불차자)

- 傷寒 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便是 不必悉具. (상한 오폭 유시호증 단견일증 변시 불필실구)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博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 臟腑相連 基痛必下 邪高通下 高使嘔也.

- 和解劑의 대표 처방
- 一名, 상한의 왕도, 三禁湯
- 血弱氣盡 腠理開 - 血弱 氣盡으로 저항이 약해져 침입한 寒에 대해 버틸 만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상태
- 邪氣因入 - 邪氣가 몸 안으로 침입해 들어옴
- 與正氣相博 結於脇下 正邪分爭 - 정기가 상대적으로 약져있고 정기와 사기가 서로 싸우는데 그 힘이 비슷하여 脇下(갈비뼈 밑)에 머물게 됨. 흥협이 寒과 熱의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가 됨.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血弱氣盡 媵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博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 臟腑相連 基痛必下 邪高通下 高使嘔也.

- 往來寒熱 – 寒과 熱이 번갈아 반복되는 것(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상황)
서로 저항하면서 寒이 이기면 추운 증상이 나타나고, 熱이
이기면 더운 증상이 나타남. cf.)만성병에서 복원력
회복하면서 명현으로도 나타나기도 함
- 休作有時 – 때때로 싸움이 쉬기도 하면서 아무 증상이 없을 때가 있다
- 默默不欲飲食 – 음식 맛이 없고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傷寒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胸中煩而不嘔 渴
腹中痛 脇下痞硬 心下悸 小便不利 不渴 身有微熱 咳者.

- 心煩喜嘔 胸中煩而不嘔 - 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따라서 嘔는 小柴胡湯의 절대적인 증상은 아님
- 渴 腹中痛 脇下痞硬 心下悸 小便不利 不渴 身有微熱 咳者.

太陽病	表 太陽 經絡	頭痛 發熱 惡寒	無汗	衛強營強	傷寒	葛根湯 麻黃湯
			自汗	衛強營弱	傷風	桂枝湯

- 傷寒五六日 - 太陽病에서 少陽病으로 5-6일정도 걸려 전경되거나, 바로 少陽病이 될 수 있다(直中)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

少陽病의 胸痛	胸痛 有	結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징 : 누르지 않아도 통증이 있는 것 (심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 키기만 해도 단중에 통증 있다) 	小陷胸湯
	胸痛 無	胸脇苦滿	<ul style="list-style-type: none"> 뽕와 滿으로 痛은 아님 肝이 있는 반대 왼쪽을 확인 흉협을 누를 때 강하게 저항 있음 흉협통과는 다름 柴胡를 주약으로 사용 	小柴胡湯
		心下痞	<ul style="list-style-type: none"> 黃蓮을 주약으로 사용 	半夏寫心湯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主治 少陽病 半表半裏 胸脇苦滿 往來寒熱 微熱 無熱 食慾不振 舌白苔 嘔吐 咳痰
便秘或下痢 淋巴腺腫脹 腹痛 頭汗 四肢苦微熱 神經質 黃疸.

- 淋巴腺腫脹 - 목감기로 시호증
- 腹痛 - 肝火의 증상
- 頭汗 - 머리는 半表半裏이므로 頭汗은 시호증이다.
- 神經質 - 자극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肝火.

傷寒四五日 身熱惡風 頸項強 脇下痛 手足溫 而渴者.

- 傷寒四五日 - 태양병에서 소양병으로 전경된 것을 말함
- 身熱惡風 頸項強 - 葛根湯을 생각할 수 있으나 小柴胡湯을 기본 사용
- 脇下痛 - 脇下에서 정기가 사기와 저항하고 있는 것
- 手足溫 - 저항을 의미. 저항이 없다면 手足寒이 됨

1. 小柴胡湯의 조문해석

柴胡 12.0, 半夏 12.0, 黃芩 6.0, 大棗 6.0, 人蔘 6.0, 甘草 6.0, 生薑 6.0

- 가장 중요한 약 - 시호, 황금 → 肝火를 瀉하는 청열제
- 肝火 → 心包 → 煩이 발생(心包 煩) - 心包的 위치 肺 부위 → 肺燥 → 逆上 → 心煩喜嘔
→ 가슴답답하고 메스꺼움 있음
- 肝火 → 흥으로 직접 들어감(胸中煩 발생) → 가슴 답답하나 역상이 없어 메스꺼림이
없음

傷寒 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便是 不必悉具.

- 위 모든 것을 압축한 중요한 조문
- 위 모든 증상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시호제를 쓴다

2. 小柴胡湯 임상 적용증

1. 往來寒熱

-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에도 사용

2. 胸脇苦滿

- 結於脇下와 같이 정기와 사기가 같은 힘으로 싸우는 곳이 脇下이므로 胸脇苦滿이 있으면 사용.

3. 心煩喜嘔

- 喜 = most of all. 가슴이 답답하면서 속이 메스껍기만 한 상황

4. 默默不欲飲食

- 대체로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

5. 嘔而發熱

- 嘔(nausea) – 메스꺼움. 메스꺼우면서 열이 날 때

비교 : 吐而發熱(throw up, vomit) – 五苓散

2. 小柴胡湯 임상 적용증

6. 모든 黃疸에 腹中痛이 있을 때

- 穀疸, 女勞疸, 黃汗 등 모든 黃疸에 腹中痛이 있으면 소시호탕 사용
- 腹痛 - 小腹, 大腹 중 어느 한 곳만 아픈 것
- 腹中痛 - 小腹, 大腹이 모두 아픈 것

7. 柴胡脈이 잡힐 때

8. 眩暈, 脹痛, 炎, 癰, 腫

- 肝火로 머리로 올라가면 현운 발생
- 肝火 → 胃를 침범 → 胃腸에 脹痛 발생 → 가스차고 복통 발생
- 肝火 → 膀胱에 침범 → 膀胱炎 → 封藏이 깨짐 → 小便自利
- 肝火가 생기면 眩暈, 脹痛, 炎, 癰, 腫 이 생기는 것은 공식과 같음.
- 간담경락을 따라 眩暈, 脹痛, 炎, 癰, 腫 이 잘 생김

2. 小柴胡湯 임상 적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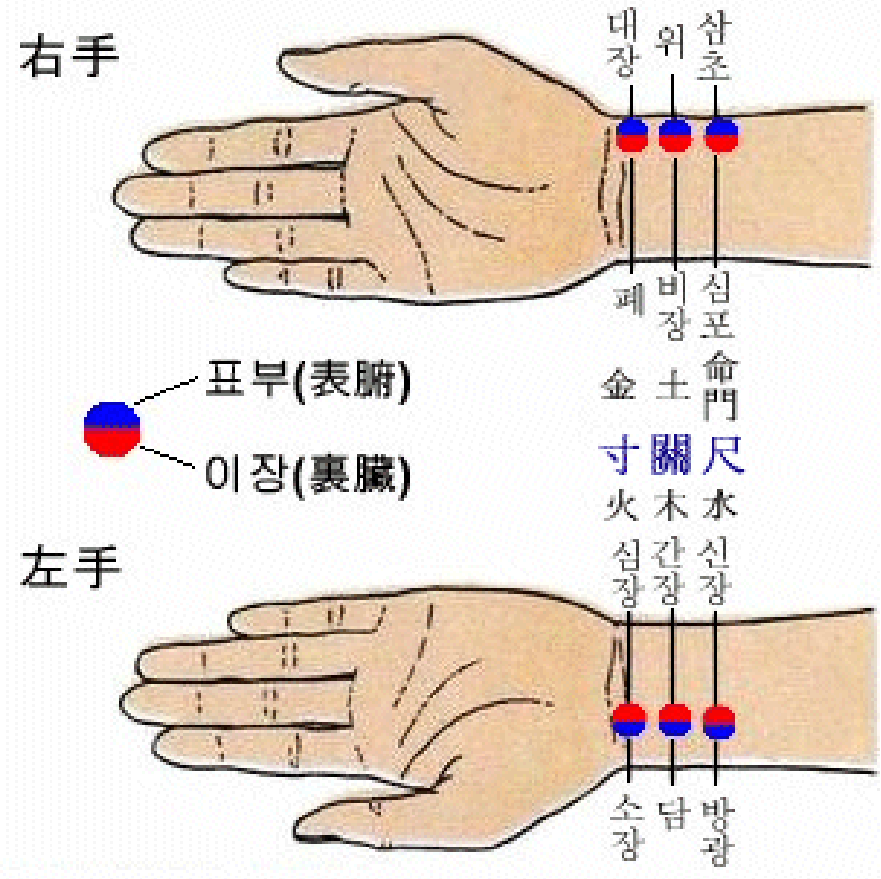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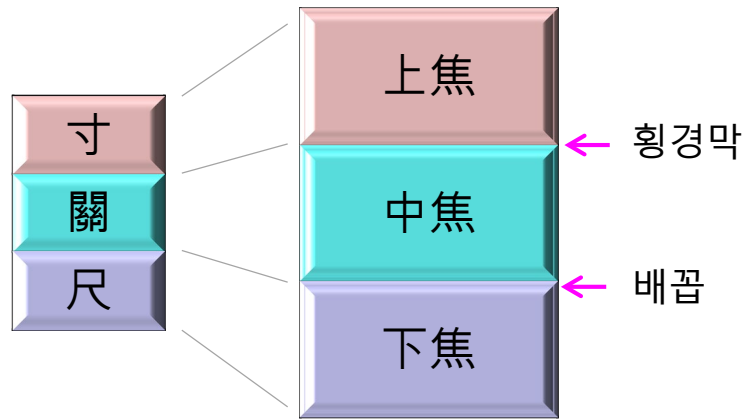
9. 肩痛, 肩臂痛

- 肝火 → 간담경락 → 진액 고갈(虛) → 어깨 攣急 → 견통, 견비통 - 천근만근
- 肝火 → 活血 부족 → 어깨 근육 자양 부족 → 견통, 견비통

10. 膈中壓痛

- 心煩의 증상 중 하나
- 시호증을 확증

3. 柴胡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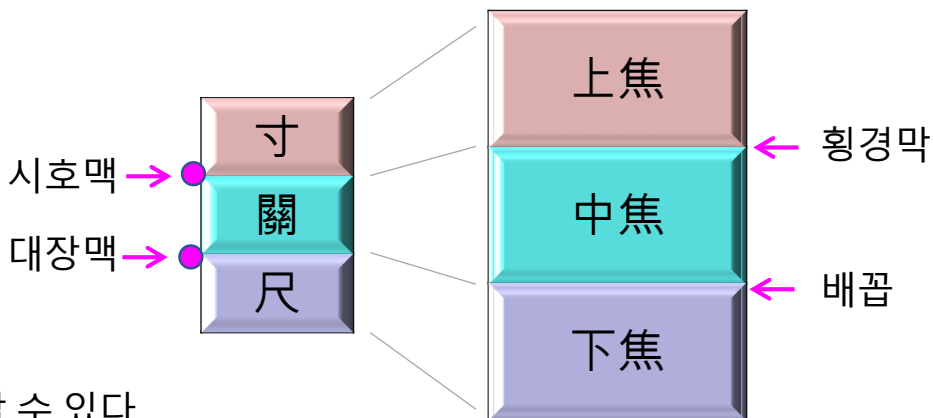
3. 柴胡脈

柴胡脈 확인법

- ① 우선 맥을 잡은 다음 寸만 놔두고 나머지 두개 손가락을 떼본다. 그러면 맥이 寸에서 뛰고 있을 것이다(안 뛰는 사람은 안 뛴다)
- ② 다시 손가락 세개로 맥을 잡아 본다.
- ③ 이번엔 關만 놔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떼본다. 그러면 關에서 맥이 뛴다
- ④ 다시 손가락 세개로 맥을 잡아 본다. 그러면 寸에서 뛰던 것과 關에서 뛰던 맥이 그 가운데인 손가락 사이로 몰려서 뛰고 있다. 이것이 **시호맥!**

시호맥이 있으면

- 스트레스가 많다
 - 90% 정도가 시호맥이더라~
 - 肝火의 문제
 - 막혀있으므로 뚫어줘야~
-
- 위 모든 임상적응 증상을 柴胡脈 하나로 알 수 있다
 -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나타남



4절 柴胡劑의 분류

1. 疏泄과 脾胃에 따른 분류

小柴胡湯의 분석

小柴胡湯	肝火 清熱	柴胡 12g, 黃芩 8g	往來寒熱, 胸脇苦滿 心煩喜嘔, 默默不欲飲食
	脾胃 작용	人蔘 4g 半夏 4g 甘草 2g 生薑 大棗	

- 시호제- 시호증이 어느 하나만 있으면 사용 가능
- 간화를 청열하고 비위를 살리는 처방으로 엄밀로 본다면 건중제에 속한다
- 소설 작용은 없음

柴胡劑가 되기 위해서는

- 柴胡가 있으면서 黃芩이 같이 있어야 清熱의 의미가 되어 시호제로 효능을 발휘
- 柴胡 : 黃芩 = 3 : 2 가 되어야 시호제로 의미가 있음

시호제를 柴胡 黃芩을 기준으로 본다면..

- 脾胃 작용이 빠지므로 建中의 의미가 빠지게 됨
- 嘔 등 脾胃症에는 관여하지 않게 됨

1. 疏泄과脾胃에 따른 분류

小柴胡湯과 관련된 방제

肝火를 淸熱	脾胃에 작용	추가되는 약재	처방명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		小柴胡湯
		桂枝 芍藥	柴胡桂枝湯
		芍藥 枳實 大黃	大柴胡湯
		茯苓 桂枝 龍骨 牡蠣 大黃	柴胡加龍骨牡蠣湯
		黃蓮 括藎仁	柴陷湯
		五苓散	柴苓湯
		半夏厚朴湯	柴朴湯

柴胡劑

肝火를 淸熱	脾胃에 작용	추가되는 약재	처방명
柴胡 黃芩		桂枝 乾薑 括藎仁 牡蠣	柴胡桂枝乾薑湯
		當歸 大黃 升麻	乙字湯
		芍藥 甘草	四逆散

1. 疏泄과 脾胃에 따른 분류

脾胃藥과 疏泄劑를 기준으로

肝火를 清熱	疏泄劑	脾胃에 작용	추가되는 약재	처방명
柴胡 黃芩	枳實 大黃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	芍藥	大柴胡湯
	大黃		茯苓 桂枝 龍骨 牡蠣	柴胡加龍骨牡蠣湯
				當歸 升麻

傷寒 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便是 不必悉具.

- 시호제를 중심으로 비위에 관한 증상이 있거나 소설제가 필요한 경우 등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하라는 뜻

2. 柴胡桂枝湯

- 柴胡桂枝湯 = 小柴胡湯 2/3 + 桂枝湯 1/3
- 위염, 구토, 복통 + 肢節煩疼

柴胡桂枝湯	小柴胡湯 2/3			
	桂枝湯 1/3	桂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表에 작용 • 小柴胡湯의 약력이 표에 작용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肢節煩疼 • 表에 작용하는 葛根湯을 더하면 더 효과적(小柴胡湯+葛根湯)
		芍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裏에 작용 • 小柴胡湯의 약력을裏에 작용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肝火 청열하여 창통, 복통 제거 • 小柴胡湯 + 桂枝加芍藥湯이 더 효과적

- 小柴胡湯을 기준으로 桂枝와 芍藥이 동량으로 작용점이 상쇄되어 정확한 효과 부족
- 小柴胡湯을 기준으로 桂枝와 芍藥의 흐름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증상과 흐름에 따라 처방을 다시 구성하면 원래 柴胡桂枝湯의 의미를 살리면서 더 효과적인 처방이 됨

예) 小柴胡湯 + 葛根湯

小柴胡湯 + 桂枝可芍藥湯,

小柴胡湯 + 小建中湯(위염, 위궤양의 1번처방, 생리통에 사용)

3. 大柴胡湯

小柴胡湯	柴胡 黃芩	人蔘 甘草	半夏 生薑 大棗
大柴胡湯	柴胡 黃芩	芍藥 大黃 枳實	半夏

- 大黃, 枳實 = 小承氣湯의 의미
- 芍藥 - 청열제로 柴胡 黃芩의 청열기능을 강화
- 枳實 - 疏泄劑로 흘러가게 함
- 大黃 - 쪼개는 작용
- 大柴胡湯의 적응증 - 肝火 + 胃家實 → 小柴胡湯에 비해 心下急이 나타남
- 心下 - 명치急 - 통증

心下急

- 명치의 통증
- 胃腸이 꽉 채워져 막혀있어 급이 온 것, 大黃이 잘게 쪼개고 枳實이 흘러보내는 것
- 위쪽(명치)가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됨 - 便秘 → 胃家實
- 대장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肝을 통하게 해야(肝 - 大腸 상통관계)
- 간을 통하게 하는 것 - 疏泄 → 대장이 통하게 됨

3. 大柴胡湯

- 막혀있는 것을 풀 때 : 平胃散 + 枳實이 효과적
 - 음식을 잘게 쪼개 흡수 쉬운 상태로 만듦
 - 속식의 정체로 소화기능이 떨어진 소화불량에 사용
- 영양을 만드는 작용 필요할 때 : 山楂, 神曲, 麥芽
 - 흡수시켜 영양을 만드는 것 (四君子湯에 배오해야)
 - 大柴胡湯에 山楂, 神曲, 麥芽 는 배오가 어울리지 않음
- 心下急이 있으면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 : 大柴胡湯 + 香砂平胃散(최고의 소화제)
- 心下急이 있으면서 복통이 있을 때 : 大柴胡湯 + 桂枝加芍藥湯(또는 小建中湯)

心下急 嘔不止

- 嘔 - 逆上, 不止 - 역상이 계속 되는 것
- 심한 딸꾹질 : 灸甘草湯 + 五苓散 + 大柴胡湯

小柴胡湯 + 芍藥 大黃 枳實이 더해진 이유

- 小柴胡湯 증상에 변비가 있을 때
- 小柴胡湯 증상에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이 있을 때
- 심하게 체했을 때, 메스꺼움이 있을 때

4. 柴胡加龍骨牡蠣湯

小柴胡湯	柴胡 黃芩	人蔘 甘草 半夏 大棗	生薑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 黃芩	人蔘 半夏 大棗	白茯苓 桂枝	動悸 ¹ 心悸 亢進
			龍骨 牡蠣 大黃 乾薑	고삼, 안신제

- 시호가용골모려탕 : 소시호탕의 증상을 중심으로 불안, 초조, 동계에 사용하는 처방

1 動悸	구분	발생원인	약제	
	臍上動悸	水毒	茯苓, 桂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독 제거, 상승 방지 (苓桂朮甘湯, 五苓散, 桂枝茯苓丸) • 기립성 현훈 (苓桂朮甘湯, 五苓散)
	臍動悸	陰虛	熟地黃	
	臍下動悸	(陰虛甚) 腎虛	六(八)味地黃湯	

4. 柴胡加龍骨牡蠣湯

眩暈	Verti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미하는 것같은 어지러움 • 누워서 고개만 돌려도 구토 증상이 심한 어지러움 • 하늘이 빙 도는 느낌 	腎虛 + 水毒 제거	振武湯
	Dizz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이 흔들려 쓰러질 것같은 어지러움 • 내가 빙 도는 느낌 	肝火(諸風掉眩*)	小柴胡湯 + 五苓散
심한 어지러움 : 振武湯 + 小柴胡湯 + 五苓散				

*素問 18病記 - 諸風掉眩 皆屬於肝

배의 중앙선

- 腎虛를 의미
- 臍上動悸의 茯苓, 桂枝, 臍動悸의 熟地黃, 臍下動悸의 六味地黃湯 모두 더한 八味地黃湯을 사용



5. 柴陷湯

小柴胡湯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
柴陷湯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黃蓮 括蕁仁

- 柴陷湯 = 小柴胡湯 + 小陷胸湯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小陷胸湯

- 小陷胸湯의 구성 : 半夏 黃蓮 括蕁仁 → 결흉과 흉통에 사용
- 柴陷湯 = 小柴胡湯 증상 + 흉통 있을 때
- 心과 胸은 같은 부위로 보므로 心胸이라고도 함
- 肝火 → 단중혈(전중혈) → 心包에 煩 유발 → 심통 발생.
煩(=熱) → 진액 고갈로 虛 유발 → 急 → 痛 발생 -心痛, 胸痛(협심증)
- 肝火 → 心(=肺) → 肺燥 → 逆上 발생 → 心煩喜嘔
肝火 → 胸 → 不嘔

5. 柴陷湯

黃蓮과 柴胡의 차이

- 柴胡 - 肝熱 瀉, 흥협부위 전체를 청열, 胸脇苦滿을 치료
- 黃蓮 - 上焦熱 瀉, 心下 한 부분에 작용, 心下痞(명치밑이 답답함), 心痛 胸痛 등 일부분의 청열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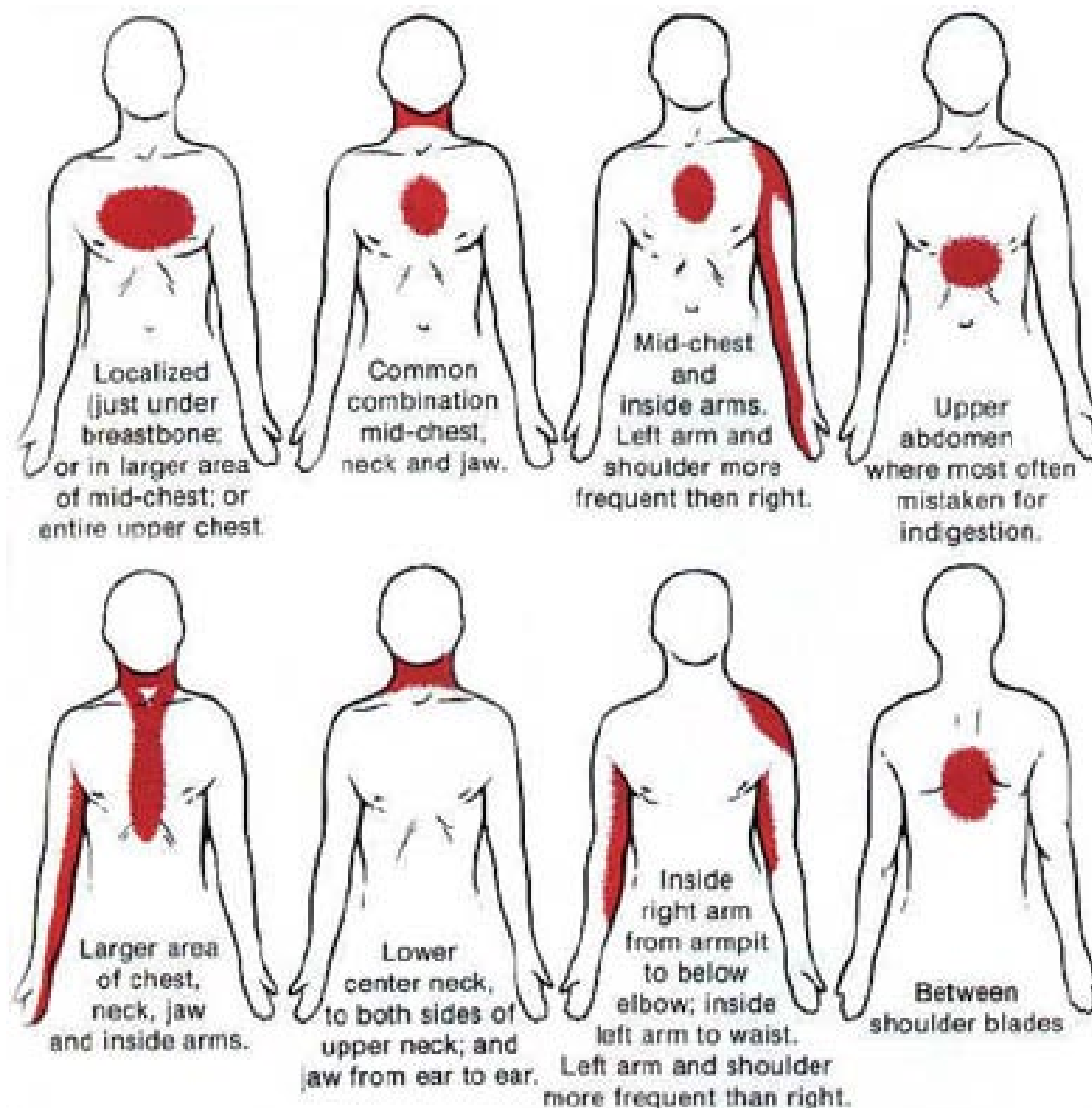
참고> 小柴胡湯과 半夏瀉心湯의 비교

小柴胡湯	柴胡 黃芩	半夏 人蔘 大棗 甘草	生薑
半夏瀉心湯	黃蓮 黃芩	半夏 人蔘 大棗 甘草	乾薑

- 括蕒仁 - 煩熱로 인하여 고갈된 상초의 진액을 보충
- 半夏 - 管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통하게 함

小陷胸湯	黃蓮	上焦의 열 제거	급으로 인한 통증 제거
	括蕒仁	진액 보충	
	半夏	노폐물 제거하여 통하도록	

5. 柴陷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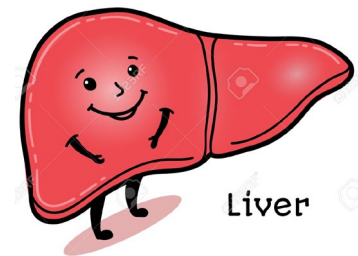


6. 乙字湯

구성 : 柴胡 黃芩 甘草 升麻 當歸 大黃

일본 사무라이들의 비상구급약

乙字湯	柴胡 黃芩	肝熱을 청열
	大黃	瘀血을 破血시키고 소설 작용
	當歸 升麻	瘀血을 肝으로 이송



乙字湯

- 瘀血을 없애는 덤프트럭, 단독으로 쓰지 않음
- 치질약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분석해 보면 치질약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빠고 멎든 타박상, 피멍 들 때,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
- 當歸鬚散 9g + 乙字湯 9g
- 當歸鬚散 단독 사용 보다 효과 빠름
- 三七, 桂枝茯苓丸 같이 쓰면 더 효과적

7. 柴胡桂枝乾薑湯

- 처방 구성 : 柴胡 黃芩 桂枝 括蕁仁 牡蠣 乾薑 甘草
- 柴胡 黃芩 - 肝熱 瀉
- 牡蠣 括蕁仁 - 진액 보충

柴胡桂枝乾薑湯	柴胡 黃芩	肝熱 瀉	小柴胡湯+小建中湯 이 더 효과적
	牡蠣 括蕁仁	진액 보충	

8. 四逆散

- 처방 구성 : 柴胡 枳實 芍藥 甘草

四逆散	柴胡	肝熱瀉	협통의 기본방
	枳實	疏泄	
	芍藥 甘草	통증에 사용	

옆구리가 아픈 협통

- 四逆散 + 龍膽瀉肝湯 사용
- 협통이 심하면 大柴胡湯 + 龍膽瀉肝湯

9. 柴胡劑

- 小柴胡湯을 기본으로 몸의 흐름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고,
(체력과 체격에 따라 시호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허실의 문제가 아니고)
大柴胡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桂枝湯, 柴陷湯, 乙字湯 등의 적응증이
구분됨
- 柴胡劑를 쓰라는 말은 기본적인 小柴胡湯에,
증상에 따라 처방을 운용하라는 뜻
- 증상과 병증을 보는 눈에 따라 처방의 운용이 다를 수 있음

肝膽經實火濕熱 脇痛 耳聾 痰溢 口苦 筋痠 陰寒 陰腫 陰痛 白濁 瘦血
(간담경실화습열 협통 이롱 담일 구고 근위 음한 음종 음통 백탁 수혈)

肝膽經實火濕熱 脇痛

- 肝膽經에 實火와 濕熱이 있어 간담경을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腋汗 : 肝膽經이 지나가는 곳. 實火 → 熱 → 냄새, 습열 → 땀
(六味+雙和湯+黃蓮解毒湯+龍膽瀉肝湯)
- 脇痛 : 肝膽經에 實火와 濕熱이 脹痛으로 나타남
龍膽瀉肝湯 + 四逆散(or 大柴胡湯)

耳聾

- 기압보다 체압이 높거나 낮아 소리가 높거나 낮게 들리는 것
- 體壓 - 氣壓과 평형을 유지해야 함
- 체압이 높으면 소리가 작게 들림(노인들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경우)
- 체압이 낮으면 소리가 증폭되어 천둥처럼 크게 들림
- 현대의학의 난청에 해당 (특정 주파수 안 들리는 난청도 해당)
- 체압 ≠ 기압 : 항상성 부족 - 腎虛부터 잡아야..
- 六味 + 龍膽瀉肝湯 (진액 보충으로 효과 높일 때 小建中湯 추가)

耳鳴

- 耳 - 腎於開竅. 腎主水. 足少陽膽經이 유주
- 어지러움 - 肝과 腎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肝을 살리려면 清熱, 疏泄, 活血, 瘀血제거를 동시에 하면서 補腎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耳鳴 - 雙和湯 + 桂枝茯苓丸 + 龍膽瀉肝湯 + 六味
- 龍膽瀉肝湯 대신 小柴胡湯, 大柴胡湯(변비시) 사용 가능
- 雙和湯 대신 當歸芍藥散 사용 가능
- 급성 - 2-3일 사용
- 만성 - 2-3달 정도 치료해야

<귀로 들어가는 경락>

경맥요법, 김재호, P109

장부	경맥	경별	락맥
귀	수소양삼초경		
	수태양소장경		
	족소양담경		
	족소음신경		
	족태양방광경		
	족양명위경		
			수양명대장경의 락맥

痰溢 口苦

- 담즙 역류 (소양병의 口苦 아님)
- 龍膽瀉肝湯 - 담즙 역류 차단, 역류성 식도염에도 이용
- 六味 + 龍膽瀉肝湯 + silymarin
- 역류성 식도염 - 龍膽瀉肝湯 + 小建中湯 사용

筋痠

- 근육의 위축
- 肝膽의 실화습열 → 活血 부족 → 근육 자양 부족 → 위축

陰寒 陰腫 陰痛

- 비뇨생식기에 사용하는 처방임을 알수 있는 증상
- 龍膽瀉肝湯 - 肝膽火旺으로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상태로 인하여 상부에 염증 충혈이 일어나고 하초에 염증 충혈 동통(배뇨통, 빈뇨, 음부습진, 음부종창, 황색대하)등이 나타날 때

白濁 瘦血

- 瘦血 - 정액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것

炎擁腫

- 肝火로 인한 것은 肝膽經絡에 발생하나, 간담경락이 전신에 영향을 주므로 염옹종의 발생 부위는 전신이라 할 수 있음
- 炎擁腫을 풀어내는 것 - 解毒
- 대표적 해독제 - 榆根皮, 貝母, 牛蒡子, 連翹, 荊芥, 金銀花, 桔梗, 阜角刺, 穿山甲, 卷柏
- 筋肉, 組織 등의 炎擁腫 - 몸의 虛로 봄 - 炎擁腫 부위를 채워주는 치료 → 柔肝 : 虛한 것을 채워 새살을 돋게 하는 것
- 청열 소설을 강제로 하면 肝이 허해짐. 허해진 간을 채워주어 염증을 제거.
- 柔肝 위해 四物湯이나 黃芪建中湯 사용(托裏消毒飲에 사물탕 함유 이유)
- 柔肝劑 : 四物湯, 黃芪建中湯, 雙和湯 - 새살 돋게하고 체력을 도와 炎擁腫 치료 촉진
- 清熱(芍藥) + 疏泄(枳實) + 解毒(桔梗) + 生薑 大棗 甘草 = 排膿散及湯
- 芍藥 + 枳實 + 桔梗 = 快氣湯 → 스트레스의 제1번 처방으로 활용 가능
- 小柴胡湯 + 排膿散及湯 =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을 때(心煩에도 사용)

肝膽에 火와 濕熱이 생기면

- 脇痛
- 耳聾
- 담즙이 역류하여 입이 쓰다
- 근육이 위축됨
- 하초가 냉해지고 생식기의 종(腫)이 생기거나 통증이 온다
- 정액에 피가 섞인 것같은 증상

6절 托裏消毒飲

金銀花 黃芪 天花粉 防風 當歸 川芎 白芷 厚朴 桔梗 穿山甲 阜角刺 陳皮

- 當歸 川芎(四物湯의 의미) - 柔肝劑

解毒劑의 처방	解毒劑로만 구성된 처방	銀翹散 托裏消毒飲 排膿散及湯	단독 사용보다 청열제 소설 제 같이 사용해야 小(大)柴胡湯+銀翹散 排膿散及湯+銀翹散
	解毒劑 + 清熱 疏泄劑		
	解毒劑 + 柔肝劑		

炎擁腫을 치료하기 위해서

- 肝의 清熱 疏泄 柔肝 解毒 필요
 - 肝을 살리기 위해서는 腎(腎虛)를 치료해야
 - 해당 부위로 引經 or 舟楫 작용약 사용
- 해독제는 炎擁腫이 클 경우 밖으로 배출하고 작을 경우 안으로 빼냄

6절 托裏消毒飲

대장 풀립

- 肝火가 대장에 침범하여 생긴 擁(옹)
- 해독제(排膿散及湯 혹 托裏消毒飲)와 청열 소설제[小(大)柴胡湯]를 쓰면서 補腎劑를 사용
- 대장으로 인경하는 약(桂枝加芍藥湯)을 더함
- 자궁근종, 유방창통, 유방암 등도 같은 개념
- 肝火로 인한 위염 - 小柴胡湯 + 黃芪建中湯 + 三七散

三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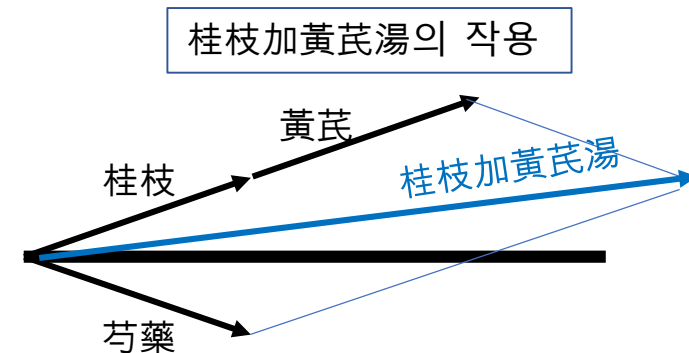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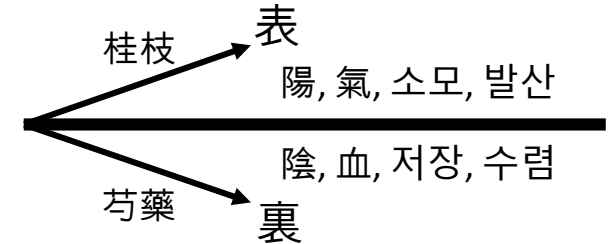
- 異名 : 田漆, 金不換
- 효능 : 新生去惡, 破血止痛, 만성해독에 사용
- 炎擁腫 제거의 주약
- 積聚, 疝癰, 癥瘕(적취현벽징가 - 암)을 풀어없앴
- 八味五子(15g) + 三七(9g) = 腎虛腰痛 처방

7절 黃汗之病

1. 黃汗之病의 病理

黃汗之病

- 黃汗之病 ≠ 黃汗(yellow sweat, 黃疸)
- 桂枝加黃芪湯(桂枝湯 + 黃芪)을 사용
- 黃芪는 表 작용 → 桂枝加黃芪湯도 表에 작용
- 芍藥 - 裏의 작용(肝 清熱작용)이 表의 작용(수렴 작용)으로 바뀜.
- 芍藥에 熟地黃, 當歸, 川芎이 더하여 四物湯이 되도록 사용한다면 芍藥의 表 수렴작용이 더 강해지고 筋을 자양하게 됨 (황기 군약+사물탕 → 雙和湯의 기전)
- 桂枝加黃芪湯을 雙和湯(or 黃芪建中湯)으로 대체 가능
- 雙和湯 - 桂枝와 黃芪가 약력을 表로 인경하여 表에 있는 筋을 수렴 자양하는 것



따라서 黃汗之病 = 筋肉의 虛를 의미

“황기 볶아 먹으면 항산화·기능성 성분↑”

황기를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하면 항산화 활성·기능성 성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황기를 200도에서 30분 열처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열처리하는 작업을 1~3회 반복한 결과, 생황기와 비교해 항산화 활성은 16배, 폴리페놀 함량은 2.7배 각각 증가했습니다.

농진청은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의 주원인을 예방할 수 있다"며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줘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기의 주요 지표물질인 '이소플라보노이드' 중 '칼리코신'·'포르모노네티' 함량도 열처리 후 각각 2.8~4.3배와 1.5~3.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뉴스9 취재K 지식K 취재후 스포츠 연예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농진청 “황기 볶아 먹으면 항산화·기능성 성분 ↑”

입력 2018.11.19 (11:10) | 수정 2018.11.19 (11:14)

□ 0 ♡ 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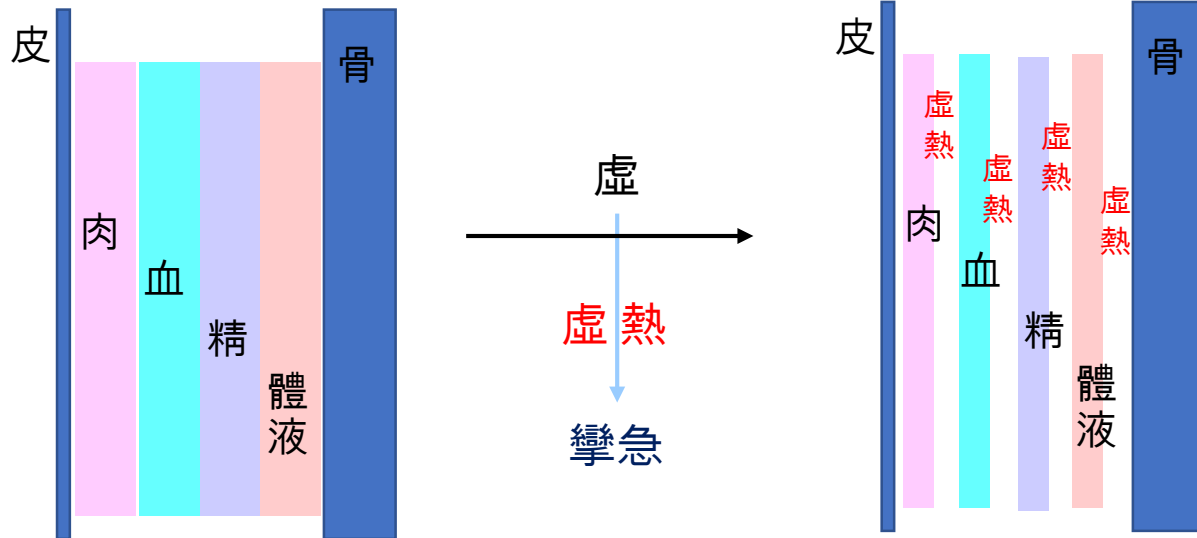


2. 黃汗之病的 조문해석

1.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양경자냉 가냉발열 차속역절)
2. 食已汗出 又身常暮臥盜汗出者 此氣勞也
(식이한출 반신상모와도한출자)
3. 若汗出已 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약한출이 반발열자 구구신필갑착 발열부지자)
4. 若汗出已 輒輕者 久久必身潤 潤則胸中痛
(약한출이 첩경자 구구필신순 순즉흉중통)
5.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髕弛痛 如有物在皮中狀 極者不能食
身疼重煩燥 小便不利
(우종요이상필한출 하무한 요관이통 여유물재피중상 극자불능식 신동중번조 소변불리)

①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虛를 보는 관점



①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五臟과 채워짐>

空間		채워져 있는 것 (자양물질)
臟	부속기관	
肺	皮毛	氣(清氣)
脾	肌肉	津液
肝	筋腱爪眼	血
腎	骨髓	精

- 肺와 부속기관(皮毛) – 氣로 자양받아야..
- 潤肺라 함은 潤皮, 潤毛를 동시에 하는 것
- 염색하지 않은 生毛가 갈색이라면 충분히 자양받지 못한 것
- 脾와 부속기관(肌肉) – 진액으로 자양. 부족하면 살이 빠지거나 부종 발생
- 몸의 모든 기관이 오장육부에 배속받아 있어 이것이 공간이고 채워져야 함
- 虛하면 虛熱이 생기고 공간이 비워져 攣急이 발생한다
- 虛가 오래되면 熱이 냉으로 바뀐다

①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虛 발생하는 원인

1. 만들지 못하여 채우지 못하는 경우
2. 채워졌지만 소모가 많아 비워진 경우
 - 소모 > 저장 → 虛 발생
 - 소모와 활동 - 肺의 문제
 - 저장 - 肝과 腎의 문제
 - 소모와 활동의 지속력 - 저장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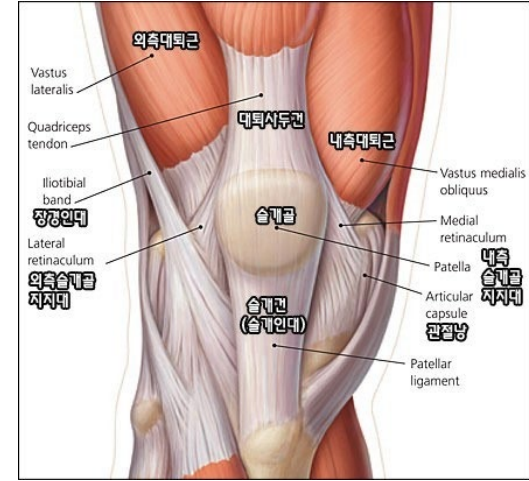
남녀생장론

- 5배수까지 저장 > 소모
- 6배수 이후 저장 < 소모
- 섭생조절로 저장을 늘리려 해도 생리기능상 소모가 많고 저장이 부족 → 虛 발생

①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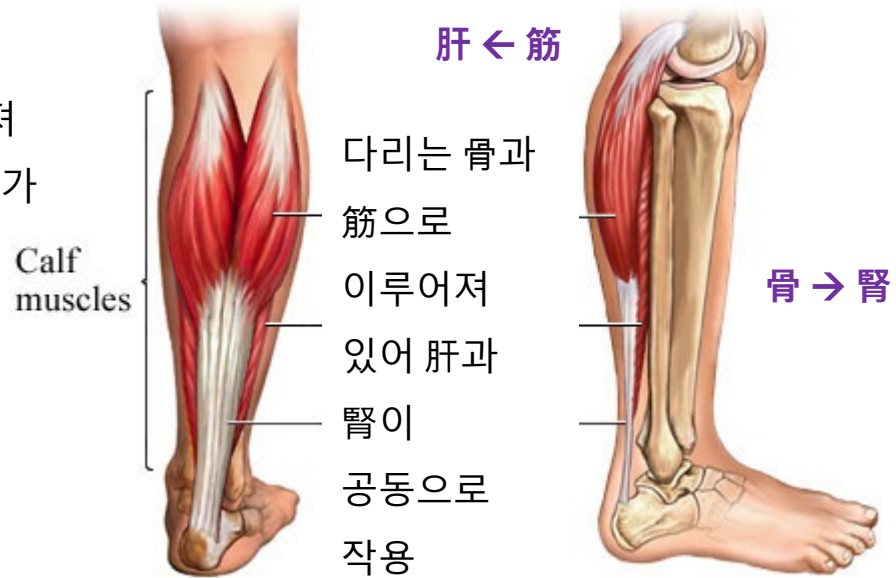
骨 : 腎에 배속.

腎虛 → 骨에 虛熱 발생 → 熱越 → 骨蒸熱 → 寢汗
 腎虛 → 骨에 攣急 발생 → 骨의 精이 빠지면서 골다공증 발생
 골다공증 치료 : 六(八)味(腎虛) + 薏苡仁湯(인경)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 종아리 - 뼈 + 筋
- 종아리가 차면서 당기고 아픈 것.
- 일 많이 하거나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소모 많아져 처음엔 허열과 연급이 생기지만 지속적으로 소모가 계속되면 열이 냉으로 바뀌어 나타난 증상.
- 역절에 속하고 통증이라는 뜻
- 雙和湯 + 羌活, 防風



①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 雙和湯 = 四物湯 + 黃芪建中湯 (+ 羌活, 防風 → 통증에 사용하는 처방)
- 四物湯 + 羌活, 防風 = 補肝丸
- 四物湯 - 肝, 筋, 腱, 爪, 眼 으로 인경. 羌活, 防風 - 통증에 작용
- 보간환 - 肝의 통증, 筋痛(근육통 신체통), 腱痛(인대부위 통증), 爪痛(손발가락통증), 眼痛(눈 주위 통증)에 응용. 종아리근육 통증에 이용 가능

- 심한 소모로 인한 통증에 저장을 채워주면 효과가 빠름
- 六味地黃湯 + 雙和湯 + 羌活 防風 枸杞子 何首烏 (+ 鹿茸)

- 六味地黃湯 + 四君子湯 → 비위를 살려 영양을 만드는 처방
- 六味地黃湯 + 四物湯 → 腎虛를 잡고 肝을 살리는 처방

② 食已汗出

食已汗出 又身常暮臥盜汗出者 此氣勞也

食已汗出

- (매운 음식이 아닌데) 먹기만 하면 땀이 나는 것 - 胃腸이 나쁜 것
- 胃腸의 소화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 → 전신의 에너지를 끌어와 소화운동에 사용 → 虛熱 → 虛熱 끄기 위해 發汗 (食已汗出의 기전)
- 胃腸운동 사용되어 전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 식후 졸음, 식후 나른함이 발생
- 胃腸 내 宿食 있으면 → 穀疸이 되어 食則頭眩 발생
- 胃腸 운동시 발생한 熱이 방광으로 가면 방광기능을 약화시켜 하지부종(음수부종) 발생
- 늦은 밤 먹고 자면 아침에 붓는 것 - 소화위해 위장이 운동하면서 발생한 熱이 수면시 비활동으로 인해 정체되어 방광 기능을 약화시켜 발생
- 食已汗出 처방 : 六味 + 雙和湯 + 黃蓮解毒湯 (숙식 있으면: + 향사평위산)

② 食已汗出

食已汗出 又身常暮臥盜汗出者 此氣勞也

又身常暮臥盜汗出者 此氣勞也

- 저녁이 되어 누울 때 몸에서盜汗나는 것 - 氣勞
- 精血 고갈 → 虛 → 虛熱 → 虛熱 식히려 땀이 남(盜汗)
- 盜汗도 결국 황한지병~
- 처방 : 六味 + 雙和湯 + 黃蓮解毒湯



③ 피부병

A. 피부병의 병리

若汗出已 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 汗 - 表의 津液
- 汗出 - 표에 열이 있어 열을 끄기 위해 땀 나는 것 → 반드시 열이 내려감
- 汗出이 되었지만 열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열이 있는 상황 - 虛熱을 의미
- 열 끄기 위해 汗出하면 津액 부족 - 汗出 후에도 열이 있다는 것은 虛熱을 말함
- 汗出 후에도 열이 있는 상황이 오래되면 반드시 甲錯이 됨
- 甲錯 - 피부가 말라서 거칠어진 것. 주로 영혈(營血)이 모자라 생기는데 심하면 고기 비늘처럼 각질화된다.
- 虛熱이 계속되면 반드시 惡瘡(혈고 진물나는 것)이 생김
- 피부에 자양 부족으로 虛熱이 뜨고 燥하여 건선 및 아토피가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惡瘡이 되어 혈고 진물이 난다.
- 열의 특징 : 痒痛瘡
- 피부병으로 가렵고 아프며 혈고 진물나는 것 - 熱
- 피부병의 치료 - 표의 熱을 발산시켜야 함
- 荊芥 防風로 表熱을 발산시키는 치료 원칙이 성립



[甲錯]

③ 피부병

B. 當歸飲子

처방 구성 : 當歸, 芍藥 川芎 熟地黃 蒺藜 防風 荊芥 何首烏 黃芪 甘草

當歸飲子	當歸, 芍藥 川芎 熟地黃	四物湯	피부가 자양되지 못하여 허한 것을 四物湯과 何首烏가 黃芪의 인경을 받아 피부를 자양하고 防風 荊芥가 表熱을 발산하며 질려가 가려움증을 잡는 것
	防風 荊芥	表熱 발산 제거	
	黃芪	약력을 表로 인경	
	蒺藜	가려움증 제거	
	何首烏	四物湯 효력 증대	

- 당귀음자 - 四物湯을 기본으로 피부의 燥症을 치료하는 처방
- 주의 : 防風 荊芥가 表熱을 발산하므로 피부병이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③ 피부병

當歸芍藥散

- 四物湯 + 五苓散 의 의미 가짐
- 肝과 부속기관(筋 腱 爪 眼)에 있는 수독의 편재에 사용
- 안구건조증과 눈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
- 四物湯이 눈에 작용하고 五苓散이 수분의 편재를 풀어 눈으로 눈물이 오게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은 보내는 작용하게 됨

當歸飲子	四物湯의 기본적인 약력을 증상에 맞게 변형시킨 처방
當歸芍藥散	
補肝丸	

③ 피부병

C. 血燥

- 피부건조가 봄 여름에는 심하지 않다가 가을 겨울에 심해지는 것
- 노화로 肝腎이 허해지면 자양부족과 虛熱이 진액을 고갈시켜 燥가 심해짐

血燥(= 血虛) 발생 원인

- ① 小腹과 肝의 순환부족
- ② 소모과다로 인한 저장 부족
- ③ 生化 부족으로 血 생성 부족

- 血虛生風 = 血虛生火
- 生風이면 血燥가 생기고 더 심하면 血枯가 됨
- 血燥는 皮起屑血(피기설혈, 피부가 일어나고 하얀 각질이 생기며 긁으면 피가 남)을 유발
- 담마진(긁을 때 빨갱게 긁은 선이 생기는 것) - 皮起屑血의 전조증
- 血枯가 오면 한쪽이 마비되는 偏枯(陰虛 + 火)가 올 수 있음

피부병의 기본처방

- 六味地黃湯 + 當歸飲子 + 黃蓮解毒湯
- 주의점 : 發表로 표열이 빠져나가면서 피부병의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음

③ 피부병

D. 전신건선

- 피부병 – 피부가 燥한 것
 - 皮屬肺 : 皮燥 = 肺燥
 - 따라서 肺燥를 잡아야 皮燥를 잡을 수 있음
 - 생혈윤부음, 생혈윤조환 – 폐조를 잡아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처방(초제로 사용)
 - 생혈윤부음 + 구완탕을 더하여 쓰면 더욱 효과가 좋다.
-
- 소아 아토피 : 육미 + 소시호탕 + 소건중탕 + 생혈윤조환을 장복
-
- 전신 건선 : 육미 + 당귀음자 + 황련해독탕
(風寒으로 증상이 심해질 때 +마행의감탕)

④ 若汗出已 輒輕者

若汗出已 輒輕者 久久必身瞶 瞶則胸中痛

- (사우나, 운동으로) 땀을 내고 난 후 몸이 가볍고 개운한 것
- 若汗出已 - 진액부족이 되어 虛熱을 발생. 虛熱은 활동시 에너지로 전환되고, 사우나로 땀을 내면 개운하더라도 사우나 후에 몸이 나른하거나 잠이 오는것은 몸이 지쳐서 보충하기 위한 것

瞶

- 筋惕肉瞶(근척육순)의 준말 - 근육이 놀라고 살이 떨리는 증상
-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허벅지근육 팔근육이 움찔 떨리거나 입술이나 눈가가 쉴룩거나 파르르 떨리는 것
- = 攣急(경력과 조임) - 마비, 저림, 통증, 쥐, 가위눌림 등을 모두 지칭.
筋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음
- 瞶의 가장 심한 증상 - 간질 발작, 角弓反張
- 瞶의 가장 중요한 증상 -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 가위눌림 - 瞶으로 인한 연급으로 흉중통부터 목까지 조임이 오는 것
- 심장발작 - 심장에서 일어난 瞶

④ 若汗出已輒輕者

<瞶의 처방>

瞶	기본	雙和湯 + 小建中湯
	심하면	六味 + 雙和湯 + 小建中湯 + 羌活 防風 枸杞子 何首烏
	胸痛 있으면	雙和湯 + 小建中湯 + 柴陷湯
	흉통만 있으면	柴陷湯 (+灸甘草湯) / (+灸甘草湯 + 계지복령환)



몸이 뒤로 젖혀지는 증상. 풍사(風邪)가 양경(陽經)에 들어가거나, 열이 극도에 달해 풍을 일으켜 일어남.
반듯이 누울 때 머리와 발의 뒤축만 바닥에 닿고, 잔등은 가슴 쪽으로 휘어 들림. 경풍(驚風), 파상풍(破傷風), 뇌염(腦炎), 뇌막염(腦膜炎) 등에서 나타남.

[네이버 지식백과] [각궁반장](#) [角弓反張]

⑤ 腰髓弛痛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髓弛痛 如有物在皮中狀 極者不能食 身疼重煩燥 小便不利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髓弛痛

- 腰髓 – 허리 ~ 엉덩이까지
- 弛 – 당기는 것 – 筋의 攣急
- 腰髓弛痛 – 허리의 통증이 방산통으로 다리끝까지 통증이 있다.
 - 고정통의 특징, 운동을 해서는 안 됨
 - 六味(신허) + 雙和湯(筋의 虛)

瘀血로 인한 통증의 특징	고정통
	晝輕夜甚
	左甚

- 疏風活血湯 – 風 – 行痺 - 流注作痛
- 疏經活血湯 – 經 – 血의미 – 風寒濕의 어혈로 인한 통증(고정통, 晝輕夜甚, 左甚)

腰髓弛痛

- 六(八)味 + 雙和湯 + 疏經活血湯
- 疏經活血湯 대신 桂枝茯苓丸 + 진통제
-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짐